

“100세 플러스 포럼, 금융자산·연금 축적 길잡이 기대”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원장, 노후대비 필요성 강조
“현명한 투자 방향 제시해 주시길”

“밸류업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투자자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투자자는 증식된 재산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시키고자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100세 시대에 들어선 만큼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들의 평균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가계 자산의 36.8%로, 60%가 넘는 미국·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보다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예금에 집중하는 대신 투자 상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자산 수익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금융 자산과 연금을 축적하는 현명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시즌2 VIP 한자리에

이장규(가운데)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밸류업 성공 키워드는 ‘노력’... 힘 모아야”

축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00세 시대 인프라 구축 최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 추진의 성공 키워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꾸준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 형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단단한 시장 인프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100세 플러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포럼’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한국 증시를 100세 시대 준비에 유용한 시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사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민관이 합심해

기업 밸류업, 나아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확대하는 한편 디폴트 옵션 편입, 상품 다양화, ISA 제도 개편, 장기 투자 세제 확대 등 자산관리 시장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투협은 올해 하반기 대중성 있는 우수 공모펀드를 상장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자산배분형 펀드를 업계 공동 브랜드화한 가칭 ‘디딤 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기조강연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이 의장, 경제·사회 변화 전망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밸류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코스피 지수 5000을 넘어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이끌 것이다.”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17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의장은 이날 ‘New Era, New Paradigm(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강연에 따르면 저금리·디플레이션이 지속되던 경제 흐름은 고금리·인플레이션 시대로 변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과거 군사력과 권력 즉 힘이 지배하던 세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대세가 되며 돈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위기를 맞았다. 새로운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도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장은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착한 기업이 각광을 받는 ‘도덕이 지배하는 척’ 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배구조의 개선 의지가 있고, 주주를 위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프



이재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밸류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고 장세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22조90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8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 주식은 올해 EPS 증가율 68.93%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장은 현재 정부와 야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정부는 배당 분리과세, 상속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유예와 함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기업에 채찍 역할을 하고, 세법 개정은 기업에 당근 역할을 한다”며 “이 당근과 채찍이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실행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5000도 기대할 수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韓, 자본시장 유리천장 깨야할 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줄탁동시(병아리가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 닭은 밖에서, 병아리는 안에서 쪼아 껍질을 깨뜨리는 것)라는 말이 있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외부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은 주주친화적 경영을 할 때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개회사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당위성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 대표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미국 증시와 달리 한국 증시는 자본시장의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박스피에 갇혀 있다”며 “정부가 공들여 진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밸류업으로 증시가 10%만 상승해도 시가총액은 260조원이 증가한다. 박스피 탈출이 본격화되면 배이비버머 등의 신규 자금 유입이 늘어나 증시도 선순환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 포럼을 통해 박스권 100세시대 체태크의 새 지평이 열리길 기원한다”라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전지원 기자 jjw13@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부통령 후보도 줄곧 ‘아메리카 퍼스트’...동맹 우려 커졌다 /사진 뉴시스
▲ 북·러 “나토 아시아·태평양 확장 우려”



▲ 몽골 대초원, 올해 서울의 11배 면적 산불로 초토화 /사진 뉴시스
▲ 러시아 외무 “美 대통령 누가 되든 협력”

▲ 英 물가상승은 스위프트 때문?...해석 분분
▲ 해외로 뺀 K-원전, 바라카부터 체코 두코바니까지 무한도전